



건설협력증진대상이 지난 11월 26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 2015년 건설협력증진대상

건설경제신문사와 건설의주협의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및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후원한 '2015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내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운영위원장과 김경욱 국토교통부 건설정책

국장,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김관주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 그리고 수상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규 심사위원장은 “올해 11회를 맞이한 건설협력증진대상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노력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며 건설산업 생태계를 선순환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김경욱 건설정책



김경욱 건설정책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무경설비(주) 김원철 대표




(주)성보엔지니어링 정달홍 대표를 대신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김영철 부사장

국장을 통해 “발주자와 원·하도급자, 그리고 건설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인 상생방안을 적극 확대해줄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는 현대건설이 대상을 수상했고, 협회 회원사 중에는 (주)성보엔지니어링(대표 정달홍, 협회 부회장)과 무경설비(주)(대표 김원열,

울산·경남도회 회장)가 협력부문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에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후원기관과 수상기관 등에서 화환 대신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쌀’ 910kg을 기부했다. 

협력부문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주)성보엔지니어링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 개척



(주)성보엔지니어링  
정달홍 대표

(주)성보엔지니어링 정달홍 대표의 경영 핵심 키워드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이다. 1986년 설립된 성보엔지니어링을 2006년 정달홍 대표가 인수한 후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경영해왔다. 그 결과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 2013년에는 고용노동 지정 ‘강소기업’으로 선정됐고, 2014에는 모범납세자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보엔지니어링은 소방 및 기계 설비분야의 전문 회사로서 해외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2011년에는 아부다비에 해외지사를 설립했으며 현재는 나이지리아와 UAE의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와 알제리에 신규 계약이 체결돼 2015년 중 현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는 대우건설이 ‘최우수협력회사’로 선정하는 등 종합건설사로부터 ‘함께 일하고 싶은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달홍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경쟁력을 가진 협력업체가 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겠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건설업 상생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력부문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무경설비(주)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신뢰의 기업



무경설비(주)  
김원열 대표

1994년 설립된 무경설비(주)는 20년 이상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중견 전문건설업체다. 특히 공동주택, 업무시설, 종합병원, 대학, 공장플랜트, UTILITY, 고속철 역사, 해외공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시공 능력을 인정받았다.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부산 해운대아이파크 등 각 지역의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주요 건물을 시공해 업계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으며, 주요 분양 아파트 시공을 비롯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한국남동발전 본사사옥 신축공사 등 업무시설분야에서도 시공 능력을 인정받음은 물론 부산복합화력발전소, 현대중공업 용연공장 신축공사 등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코트디부아르, 스리랑카 등 해외공사도 여러 건 수주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무경설비 김원열 대표는 “시공 뿐만 아니라 A/S 등 사후관리 능력 강화에도 힘써 고객에게 신뢰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11월 20일 건설회관 2층에서 '2015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 2015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지난 11월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5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건설기능인의 날'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130만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함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유관단체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인사와 노동계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문화공연,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 유공자 포상, 치사 순서로 진행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건설기능인은 건설산업의 숨은 일꾼으로 이 행사를 통해 위상을 높이고 가치를 인

정받아 건설기능인에 대한 인식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건설기능인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은 치사를 통해 "건설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조항 김기석 이사장(사진 앞줄 오른쪽)과 협회 강신구 상임부회장(사진 앞줄 가운데)

기능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기능인에 대한 처우 개선,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어려운 건설현장여건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건설기능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업에 장기근속하

며 건설산업 발전에 모범이 된 건설근로자 35명에게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됐다. 이날 포상자 중 우리협회 소속으로 지에스네오텍(주)[대표 최성진, 서울] 채태희 배관반장이 대통령 표창을, (주)삼보테크 [대표 서진수, 충북] 김영표 배관반장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

**지에스네오텍(주) 채태희 배관반장**

**정밀시공과 철저한 안전관리 및 후배 기능공 양성으로 건설업 발전에 이바지**



1971년부터 현재까지 44년간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성실시공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인명사고 없이 현장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7년 포항제철을 시작으로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과 해외현장을 돌며 풍부한 노하우를 쌓았고, 이러한 노하우를 후배 기능공들에게 적극 전수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배관사로서 기능공, 배관반장, 작업반장을 거쳐 총괄책임자까지 맡으며 철저한 현장분석과 작업준비로 안전시공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주)삼보테크 김영표 배관반장**

**철저한 품질관리와 재해예방 등으로 타의 모범 보여**



1978년부터 현재까지 37년간 건설공사현장의 기계설비배관 현장에서 갈고 닦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72개의 현장을 누비며 시공품질 향상과 하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공동주택, 정부업무 시설공사 등에 참여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재해 예방은 물론 신기술·신공법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공사원가절감에도 기여하였다. 한편 2014년도에는 건설기능경기대회 배관분야 3위에 입상하여, 배관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자기개발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건설기능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